

#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3. 03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 목 차

1. 다수 상업적 다랑어 자원량 상태 MSC 기준 미달 ..... 3
2. 美, IUU로 더럽혀진 수입 수산물 통관 금지 실패 ..... 4
3.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BBNJ) 협약 타결 ..... 5

- 국제 수산물 지속가능성 재단(ISSF)에서 게재한 보고서 “해양관리협의회(MSC) 기준에 따른 세계 다랑어 자원량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르면, 상업 다랑어 자원량 주요 어종 23개 중 8개 어종만이 초과 어획을 면하고 있으며 해양관리협의회(MSC) 기준에 따라 자원량 목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고서에 따르면 MSC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업 자원량” 점수에 부합한 어종은 서부 대서양 가다랑어, 북대서양 날개다랑어, 남대서양 날개다랑어, 동부 대서양 참다랑어, 서부 태평양 가다랑어, 동부 태평양 황다랑어, 동부 태평양 가다랑어 그리고 인도양 가다랑어임
  - ISSF에 따르면, MSC 기준에 부합하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관리 기구에서 어획통제규칙(HCR)을 수립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임
    - 기준에 따라 낙제 점수를 받고있는 자원량은 대서양의 황다랑어, 눈다랑어, 동부 가다랑어, 서부 참다랑어, 대서양 지중해 날개다랑어이며 태평양 수역에서는 서부 황다랑어, 서부 눈다랑어, 동부 눈다랑어, 북부 날개다랑어, 남부 날개다랑어, 및 태평양 참다랑어임
    - 인도양의 경우, 황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모두 전반적인 낙제 점수를 받았음
  - 관련 보고서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현행화되고 있으며 참치 RFMO에 대한 점수 및 다랑어 관련 관리 지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해당 보고서는 전반적인 다랑어 자원량 상태의 지속가능성과 RFMO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적 측면의 시스템과 어구별, 선박별 생태계적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음
    - 보고서의 목표는 다랑어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해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학 기반의 활동 시행, 보존관리조치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sup>1)</sup>

1)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issf-report-finds-majority-of-tuna-stocks-don-t-meet-msc-standards>

- 환경보호단체 오세아나(Oceana)의 보고서 “No Questions Asked”에 따르면 미국은 IUU 어업으로 더럽혀진 수산물의 국경 통과를 금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약 60%가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음
  - 미국의 수산물 수입 감시 프로그램인 SIMP는 13종의 수산물만 검사하고 있어 많은 단체들에게 비판받고 있음
  - 오세아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체 300억 달러 가치의 수산물 중 20억 달러 가치의 수산물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전체비율 중 13퍼센트만이 SIMP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다수의 중국 원양어선들이 세계적으로 IUU 어업으로 고발당하고 있어 제대로된 규제를 받지 않은 것이 우려가됨
    -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산물은 냉동 틸라피아 필렛, 냉동 대구, 냉동 연어 필렛, 냉동 대구 필렛으로 다수가 양식 어업으로 생산되었거나 중국에서 수입 후 가공하여 재수입하는 형식임
    - 그 외 러시아, 베트남, 대만, 카메룬 선박들이 불법 어업, 인권 유린 문제로 IUU 목록에 자주 등재되고 있으나 미국의 SIMP에서 관리하지 않는 어종이 다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미국은 SIMP의 관리 어종을 확대할 계획에 대하여 표명하였음
  - 그러나 미국 수산물 업계 중 대표되는 국립 어업 협회(The National Fisheries Institute)에 따르면 SIMP의 불법 어업에 대한 영향은 미비하며 주요 역할은 멸종 위기 어종의 보호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sup>2)</sup>

<sup>2)</sup><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oceana-report-claims-us-failing-to-stop-iuu-from-entering-country>

- \* 아래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웹사이트에 게시된 'The High Seas Treaty is an Extraordinary Diplomatic Achievement' 기사를 번역한 것임.
- \* 글쓴이 Stewart Patrick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자 세계질서 및 제도 프로그램 국장임. 주된 연구 분야는 변모하는 세계질서, 미국 국제주의의 미래, 초국가적 도전에 관한 효과적인 다자협력 방안 등임.
- 지난 3월 4일, 세계는 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었음. 36시간의 연속된 협상 후, 뉴욕에 모인 약 200개 국가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은 공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에 합의하였음. 이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 환경협약임.
- 구어적으로 BBNJ조약이라고 흔히 알려진 본 협약은 국가관할권 이원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다루기에 대중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않았지만, 20년간의 외교에 의해 도출된 것임. UN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비준되면, 지구 표면의 43%를 포함하는 해양생물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포괄적인 제도를 수립함.
- 관련되어 있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동서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기후 및 개발 이슈들에 관한 이견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본 조약은 큰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음.
- 어느 한 주권국가 관할권 이원에 위치하는 공해는 전형적인 공유재임.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해는 어업, 해양오염, 회유성 새, 심해 광업을 관할하는 다수의 다자조약과 지역협정들에 의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 글로벌 바다 현장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공해가 어느 연안국가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이원에 있는 해역임. UNCLOS가 특히 항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원칙들을 수립하고 있지만, 공해 환경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들은 결여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십수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들이 수립되어 있지만, 기구들의 관할범위는 불완전하고, 회유성 어족 또는 취약한 생태계 보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BBNJ조약은 이러한 갭들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함. 한때는 척박한 곳으로 간

주되었던 공해이지만 지금은 대체할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러한 유익들이 기술 발전에 의해 (대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탐욕스러운 선단들과 심해 광물을 착취하기 위한 새로운 금광 러시에 의해 전례 없는 착취 위험에 처해 있음. 이미, 과학보고서들에 의하면, 오염되지 않은 바다는 3%에 불과하다고 함.

- 세계적으로, 세계 어업의 2/3은 초과어획 상태이거나 과도어획 중으로서, 공해는 특히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인한 착취에 취약함. 한편, 광물 탐사 기업들은 업계로부터 포위된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관리되지 않은 야심찬 채굴 작업들을 계획하고 있음. 해양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한 시험 전략과 같은 의도가 좋은 국내 또는 국제 계획들도 의도하지 않은 생태학적 결과들을 야기할 수 있음.
- 작년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자들은 기후변화가 90%의 해양생물을 멸종시켰던 2억5천만년 전의 페름기 대멸종과 같은 대량 멸종 사건으로 바다를 내몰고 있다고 경고하였음. 1800년부터, 바다는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1/3, 온실효과로 인한 열의 90%를 흡수하고, 식물성 플랑크톤 덕분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50%를 공급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왔음.
- 그러나 현재 바다는 산업혁명 초기에 비해 30% 더 산성화되었고 이전 어느때보다 온도는 상승하였고 산소는 낮아졌음. 바다 수온과 화학적 변화는 미생물부터 큰 어류에 이르기까지 해양생물에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복잡한 먹이사슬과 전체 생태계를 붕괴시킬 위험에 이르렀음.
- UNCLOS 아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성격으로 체결된 BBNJ조약은 이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임. 회원국들에 의해 비준되면 당사국 총회에 의한 거버넌스 및 새로운 과학 및 기술 위원회의 지원 하에, 고유한 사무국을 가진 새로운 국제기구로 수립될 것임.
- BBNJ조약은 많은 힘든 다자협상들을 거친, 여러 개의 새로운 매커니즘들을 수립함.
- 첫째, 그것은 취약한 해역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MPA) 및 기타 공간 기반 도구들을 지정하기 위한 과정을 수립함. 공해는 무수한, 생태학적으로 민감함 해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해역들을 어떻게 집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들은 합의하지 못하여 왔음. 비록 많은 국가들이

자국 EEZ 내에 MPA들을 지정하였지만, 현재 공해의 1%만이 MPA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 이러한 취약한 해역들을 확인, 수립, 규율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은 지구 바다의 30%를 보호하는 목표(지난 12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사항)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함.
- 둘째, BBNJ조약은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상업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함. 공해에서 모든 영리 추구 활동을 하기에 앞서, 국가와 기업들은 해양생태계 및 생물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검토 및 보고할 의무를 가짐. 하지만 불분명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이 공해 어업, 광업 및 해운을 규율하는 기존의 지역 및 다자기구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임.
- 셋째, 조약은 해양 유전자원의 형평한 배분을 수립함. 이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음.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선진국들은 공해 생물로부터 유전 정보를 획득한 민간 바이오기술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에 대해 강력한 보호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음.
- 반면, 개도국들은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발견들은 '인류 공동의 유산'의 관점으로 의무적으로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이 첨예한 주제에 대해서 협상가들은 남북 간 입장차를 좁히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례 없는 합의를 도출하였음.
- 합의사항에는 또한 선진국들이 과학지식 및 기술을 개도국에 공유하도록 하여 개도국들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해양어종 및 생태계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고, 부상하는 청색경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개도국 특별기금도 설립됨.
-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음. 대표단들은 협상을 다시 오픈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지만, 여러 국가들은 내용을 다시 협상하길 희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그중 하나는 러시아로서, 협상의 마지막 단계가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텍스트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하였음.

- 텍스트가 채택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약 서명국들은 국내 절차에 따라서 비준을 해야 함.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심각한 장벽에 부딪힐 것으로, UNCLOS를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고 당락에 의해 상원이 '조약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임.
- 국가들이 아직도 여러 미결 이슈들로 씨름하고 있어 이행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미결 이슈 중 하나는 누가 실제로 공해에서 MPA들을 보호할 것인지임. 또 하나는 조약 하 분쟁해결을 위한 명확한 제도 수립임. 새로운 기구를 위한 재정적 자원의 규모와 그 사용을 규율하는 매커니즘 이슈도 있음.
-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약은 암울한 세계 정세에 축하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였음. 불과 몇일 전, 빈약한 코뮌케만을 도출한 G20 외무장관 회의(뉴델리 개최)에서 인도 외무장관 Subrahmanyam Jaishankar는 "다자주의의 위기"를 언급하였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BBNJ조약은 최소한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는 사안에서는 국제협력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음.

출처: [www.carnegieendowment.org](http://www.carnegieendowment.org)<sup>3)</sup>

<sup>3)</sup><https://carnegieendowment.org/2023/03/08/high-seas-treaty-is-extraordinary-diplomatic-achievement-pub-89228> (2023년 3월 8일 기사)